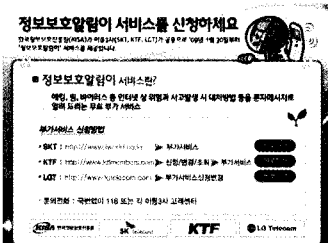




사이버 보안 정보, 이젠 문자로 받는다

: '무료' 정보보호알림이 서비스 개시



▲ 정보보호알림이 서비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KISA)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3개 이동통신사와 공동으로 '정보보호알림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작된

알림서비스는 지난 9월 KISA와 이동통신 3사간에 체결된 사이버침해사고 공동대응협약의 후속조치로, 이동통신 가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요 침해사고 관련 보안공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SMS 부가 서비스. KISA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가 각 이동통신사에 사이버 위협 정보 및 대응방안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공지 내용을 제공하면, 이동통신사는 정보보호알림이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

KISA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이명수 센터장은 "정보보호알림이 서비스는 정보전달 방식을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일반인들이 손쉽게 보안 공지를 접하고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이버 보안 SMS를 받으려면 각 이동사 고객센터(114) 혹은 고객 홈페이지(SK텔레콤: [http://www.](http://www.tworld.co.kr)

[tworld.co.kr](http://www.tworld.co.kr), KTF: <http://www.ktfmembers.com>, LG텔레콤: <http://www.lgtelecom.com/>)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ISMS 인증 고객 만족도 93.1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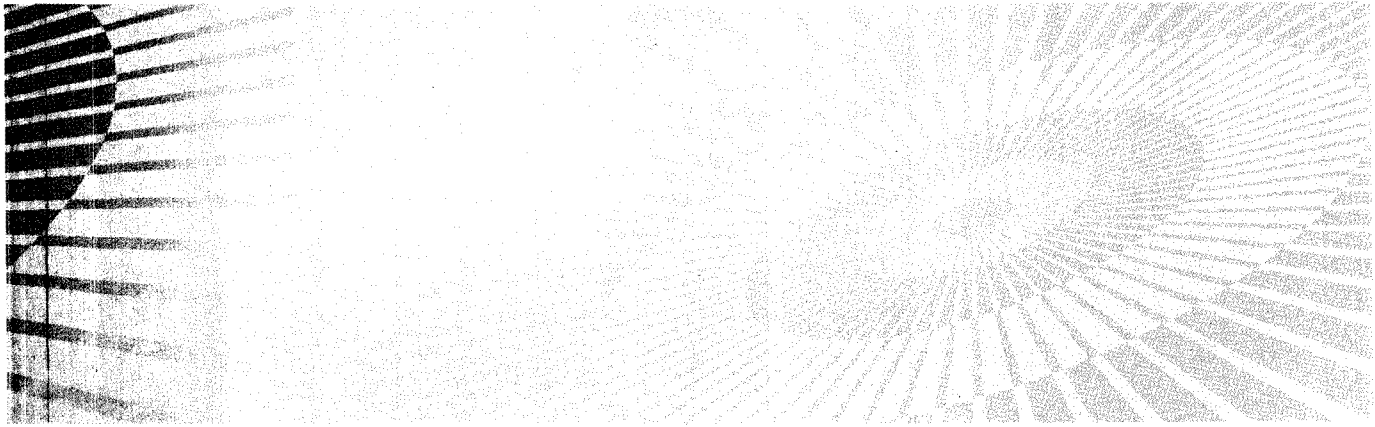
: 공익성, 전문성, 편의성, 청렴성 특히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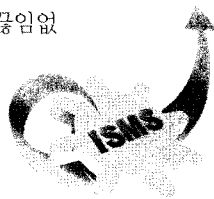
▲ ISMS 운영관리자 대상 워크숍

지난 2008년 12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KISA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제도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매우 높은 93.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항목 중 공익성, 전문성, 편의성, 청렴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같은 결과는 고객으로부터 제도의 공신력, 전문성, 객관성을 입증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KISA는 ISMS 인증고객을 대상으로 ISMS 구축 가이드 제공, 세미나 및 교육 실시, 홍보자료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008년 대형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과 맞물려 ISMS 인증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이런 상황은 2009년에도 이어져 사이버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원격 대학교 등 교육 분야를 비롯해, 민감한 의료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까지 인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ISA IT기반보호단 원유재 단장은 “2009년에는 ISMS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인증을 준비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증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여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홈페이지에 성벽을 쌓아라!

: 홈페이지 보안성 강화 프로그램 'Castle' 보급

KISA가 최근 홈페이지 해킹 방지 프로그램 '캐슬(CASTLE)'을 개발해 보급을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해킹은 사용자 인증을 우회할 수 있는 명령어를 삽입하거나, 게시판 등에 해킹 도구를 업로드해 시스템에 침입하는 방식이며, 지난 2008년 상반기 800여개의 홈페이지에서 악성코드가 유포됐던 사고와 SQL 삽입사고 역시 이 같은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악용했다. 캐슬은 이와 같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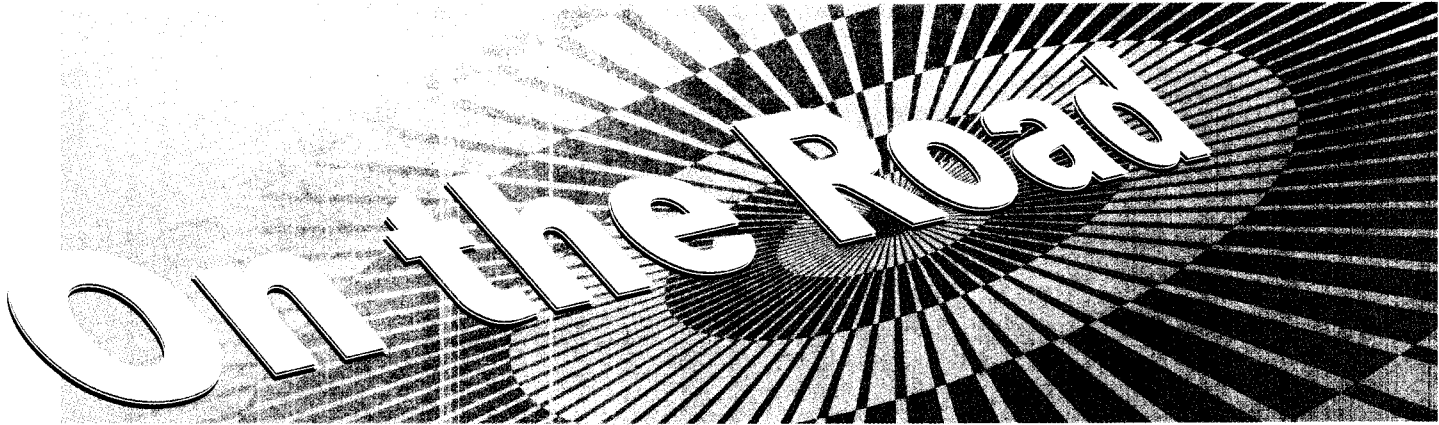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KISA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홈페이지 제작언어(ASP, JSP, PHP) 환경에 맞춰 제작돼, 홈페이지 개발자와 관리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 설치 시 최소한의 프로그램 수정만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이 장점이다. KISA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이명수 본부장은 “인터넷 서비스가 웹 기반으로 진화함에 따라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도 더욱 정교해 질 것”이라며, “홈페이지 운영기업은 캐슬을 적용해 해킹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KISA는 특정 홈페이지가 이미 해킹에 피해를 입어 해킹도구가 홈페이지에 설치된 경우, 캐슬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KISA가 지난 2008년 11월 보급한 웹 해킹도구 탐지 프로그램 휘슬(WHISTL)을 함께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캐슬은 KrCERT/CC 홈페이지(<http://www.krcert.or.kr>)에서 프로그램과 설명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노사공동 정보보호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사관학교,
KISA 2009년 교육체계 발표

KISA가 국내외 정보보호 메카로서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체계를 더욱 강화한



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ISA는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CLO(Chief Learning Officer : 최고학습책임자) 제도를 도입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수립과 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중장기 경영전략 상의 주요과제로 인적자원개발을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KISA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ISA는 이미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노사 공동으로 정보보호 전문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도출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사 공동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정보보호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 공동의 교육위원회 구성은 인적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노사화합 및 상생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CLO를 겸임하게 된 KISA 황중연 원장은 “이번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체계 강화를 통해 국내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역량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인턴제로 경제위기 극복 함께 해요

: 2009년 말까지 인턴 50여명 채용

KISA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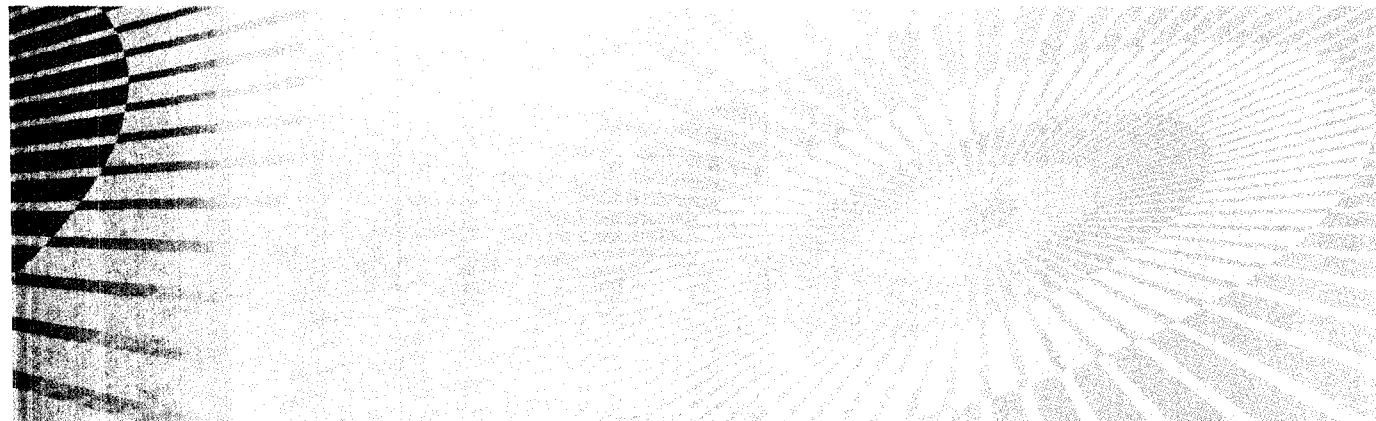
및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50명의 인턴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KISA 인턴 모집대상은 만 29세 이하의 대졸 및 대학원졸 미취업자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채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정보보호 정책 연구 및 동향조사 지원, ▶정보통신기반보호 기술 관련 기초 자료조사 및 연구지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태조사 및 클린캠페인 지원,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 지원, ▶인터넷 침해사고 상황관제 및 상담 지원 등 KISA의 전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KISA 각 부서에 배치돼 6개월에서 12개월간 하루 8시간씩 근무하게 되며, 근무기간 중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해 KISA 황중연 원장은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인턴제 운영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청년 인턴 선발 시 이공계 출신을 배려하고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KISA, NCSC와 국산암호 이용 확산 위해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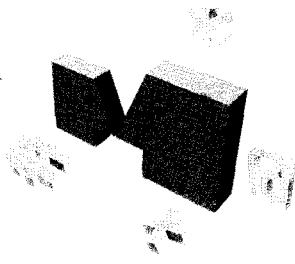
: 국내 암호분야 발전으로 이어질 듯

국산암호의 이용확대를 위해 KISA와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가 지난 1월 21일부터 국산 암호기술 SEED와



ARIA의 정보공유와 공동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SEED와 ARIA는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국산 암호알고리즘으로, 양 기관의 정보공유 및 공동배포는 SEED와 ARIA의 소스코드를 받는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산 암호기술의 이용확대를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민간분야에서 국산암호 SEED의 국제표준화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수년전부터 노력해 온 KISA와 국가 공공분야의 암호를 책임지고 있는 NCSC가 본격적으로 협력을 시작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KISA 암호응용팀 전길수 팀장은 “KISA와 NCSC의 협력을 통해 국산 암호기술의 활용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민간과 공공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은 국내 암호분야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이용자 불만과 민원 감소

: 방통위,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2008년 하반기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불만은 상당히 감소했지만 제품별 성능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08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유료 109종, 무료 19종 등 총 128개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프로그램 설치 시 동의 여부’, ‘추가 프로그램 설치 여부’, ‘이용약관 여부’, ‘스파이웨어 치료성능’ 등 기능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 총 36개 항목으로 조사됐다. 먼저 관리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 설치 시 동의절차가 명확한 프로그램은 102종(80%)으로 밝혀졌으며, 설치 시 약관이 있는 프로그램이 91종(71%)인 것으로 나타나, 2008년 상반기 조사 당시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관련 민원 접수 감소로 이어졌는데, 2008년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관련 민원상담은 116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07년 하반기 386건, 2008년 158건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수치다.

한편, 성능시험 결과에서는 전체 시험 샘플 중 150개(10%) 이상을 정확히 진단한 프로그램은 19종, 150개 미만~1개 이상을 진단한 프로그램이 9종이었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탐지하지 못하거나 검사 시 프로그램 실행오류 등이 발생했다. 또한 성능시험 결과 스파이웨어 탐지율이 우수한 상위 10%(13종) 프로그램 중에는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5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제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등과 협조해 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